

Sermon Notes:

서론: 중국 명대 철학자, 정치가, 장군이었던 왕양명의 일화
내적 갈등에 대해 준비가 되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

본론:

1.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민: 믿음 후에도 남아있는 죄 문제
가. 성선설 vs 성악설 ->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음
나. 죄와 계속되는 전쟁 (내적 갈등)
2. 내적 갈등(전쟁)에서 승리하려면
가. 율법의 기능을 제대로 알아야 함
죄를 깨닫게 함, 율법으로는 구원하지 못함
나. 우리 자아 본성을 알아야 함
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육체의 연약함과 한계
거룩함에 대한 소망 vs 죄의 법
바울의 탄식: '곤고한 사람' (가련한, 비참한, 고통스런)
나?: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인가 믿은 후인가?
다.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알아야 함
25 절이 없었다면 비극의 장으로 마침
진정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, 믿음으로!
정죄, 좌절 ->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로 확신
Under victory side: 올리버 크롬웰

결론: 우리 스스로 연약한 존재임과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
순종하며 나갈 때 최후 승리가 있음을 알고 때로 넘어지더라도
승리의 고지를 향해 전진하고 전진하여 죄와의 싸움에서 통쾌한
최후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.

암송구절: 로마서 7 장 25 절

'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. 그런즉
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,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'

Memo/Reflection:

1.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해 갈등이 있는가?
2.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?
3.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승리의 확신이 있는가?